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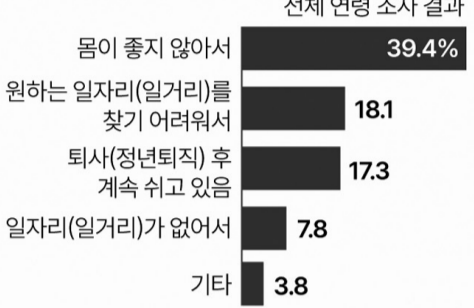
“구직·취준 없이 그냥 쉰다”...청년 취업률 50만명 역대 최대

청년층 '쉬었음' 인구 추이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인구) 가운데 활동상태를 '쉬었음(구직·취준 준비 등을 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청년층(15~29세)



'쉬었음'의 주된 이유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 중 49만7000명 달해...1년 새 4만500명 늘어
청년 취업자 12만5000명 감소...전 연령대 '쉬었음' 인구도 최대 규모

지난달 경제 활동 상태를 물었을 때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15~29세) 응답자가 50만명에 육박했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인구) 가운데 활동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은 49만7000명이다.

이는 2월뿐 아니라 모든 월을 통틀어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019년 2월 38만6000명에서 2020년 2월 43만8000명, 2021년 2월 44만9000명, 작년 2월 45만3000명으로 점차 늘다가 올해 2월 49만7000명을 기록했다. 1년 새 4만5000명(9.9%)이 늘었다.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던 미취업자는 실업자로 분류된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 상태도 실업 상태도 아니었던 비경제활동인구는 활동 상태별로 육아,

가사, 재학·수강 등, 연로, 심신장애, 기타 등으로 나눈다.

'쉬었음'은 이 중 기타에 속하는 경우로, 취업 준비·진학 준비·군 입대 대기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구직도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쉬었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1년에 한 번 '쉬었음'의 주된 이유를 조사하는데, 작년 8월 결과를 보면 몸이 좋지 않아서(39.4%)가 가장 많고 이어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18.1%),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7.3%),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7.8%),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7.1%), 일의 완료·고용계약 만료(3.4%), 직장의 휴·폐업으로 쉬고 있음(3.0%), 기타(3.8%) 순이었다.

그러나 이는 전 연령을 포괄한 조사 결과여서 청년층만 떼어 보면 '몸이 좋지 않아서' 비율은 이보다 낮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의 비율

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국제 기준에 따라 집계하는 구직단념자는 지난달 35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5000명 줄었다.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했으나, 노동 시장적 사유로 일 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었던 자를 의미한다.

흔히 떠올리는 취업 포기자보다 다소 좁은 개념일 수 있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38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5000명 줄었다. 2021년 2월(-14만2000명) 이후 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청년층 고용률은 45.5%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2월 이후 2년 만에 하락 전환이다.

지난달 전 연령대 '쉬었음' 인구는 26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5000명 늘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다.

전체 월로 범위를 넓히면 2021년 1월(271만5000명), 올해 1월(265만3000명)에 이어 세 번째다.

비트코인 2만8000달러 돌파

최근 오름세를 지속하는 비트코인 가격이 금융 시장 혼란에도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2만8000달러(약 366만원)를 돌파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장중 2만8258달러(약 370만원)까지 상승, 올해 들어서만 70% 가까이 올랐다.

이더리움도 지난해 17% 상승하는 등 다른 가상화폐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승세는 가상화폐가 위험 헤지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79.20 (-16.49)
↑ 코스닥	802.20 (+4.81)
↓ 금리(국고채 3년)	3.373 (-0.042)
↑ 환율(USD)	1310.10 (+7.90)

광주전남경제단체연합회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정착에 최선”

10월 시행...준비 철저·적극참여
혁신활동 전개 지역경제 발전 기여

광주·전남지역 경제단체들이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광주전남경제단체연합회(회장 나기수)는 20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관련 광주·전남 중소기업인 약속'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 환경과 조기 현장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연합회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홀로 짊어져 왔다”라면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은 조업을 중단하거나 폐업으로 내모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중소기업에 안겨줬다”고 진단했다.

이어 “2019년 납품대금조정 협의제도가 시행됐으나 원자재 가격이 이미 오른 상태에서 대기업 등에 추가로 납품대금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중소기업 처지에서는 이런 요구를 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은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8일 납품대금 연동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4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 “새로운 상생 협력 거래문화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우리 지역에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준비 철저 및 조기 정착 적극 참여, 혁신활동 전개 통한 광주전남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2018년 설립된 광주전남경제단체연합회는 광주·전남 10여개 중소기업 관련 협회가 모여 지역 특성이 반영된 정책을 개발, 제안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SMART 자판기' 이벤트 실시

비대면 채널로 예·적금 가입
6월30일까지 앱에서 참여 가능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오는 6월 30일까지 'SMART 자판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SMART 자판기' 이벤트는 최근 1년 이내에 광주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개인뱅킹 앱(APP), 모바일 웹 등 비대면 채널로 예·적금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고객은 비대면 채널로 적금 월 10만원(또는 외화적금 100달러) 이상이나, 정기예금 100만원(외화예금 1000달러) 이상 가입 후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 이벤트 메뉴의 'SMART 자판기'에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CU편의점 5000원 상품권 ▲다이스 5000원 상품권 중 원하는 경품을 선택할 수 있다.

월·일까지 전주 동안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고 'SMART 자판기'를 통해 경품을 선택한 선착순

4000명의 고객에게는 매주 수요일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는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에서만 가능하다.

변미경 광주은행 디지털금융센터장은 “디지털 금융에 재미 요소를 더해 고객님께 일상 속 금융의 즐거움을 전달해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MZ세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니즈를 파악해 광주은행의 디지털 금융을 편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광주본부, 함께하는 100년 농촌 저금리대출 출시

최저 연 3%대 금리 적용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20일 동곡농협(조합장 이동운)에서 '함께하는 100년 농촌 저금리대출' 상품 출시행사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함께하는 100년 농촌 저금리 대출 상품은 영농 자금 저리 지원을 통한 영농기반 확보와 농업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출시됐다. 농업인 조합원과 청년창업농, 귀농인을 대상으로 ▲최저 연 3%대

저금리 ▲1인당 최대 5000만원 ▲2년 이내 기간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농업인 2만여명을 대상으로 총 330억원 규모의 대출금리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은 운전자금 용도로 신규 대출 및 기존 영농자금의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1조원 한도로 한시 판매되며 한도 소진 시 판매 종료된다.

고성신 본부장은 “금리상승에 따른 영농자금 비용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농협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